

# 朝鮮後期 古文獻 評價를 위한 研究

-肅宗·景宗 兩朝의 黨爭關係文獻을 中心으로-

An Evaluation on the Old Literatures in the Late Yi Dynasty

- Focusing on the Literatures of the Political Arguments in the Period of King Sukjong and King Kyeungjong -

최 현 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졸업

Choi, Hyun Young

Dep.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ung Kyun Kwan Univ.

본 연구는 조선후기문헌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당쟁관계문헌의 1차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한국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에게 조선후기자료에 대한 평가와 이용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함이 목적이다. 역사적 사건별로 동일사건에 대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문헌의 서술태도와 관점을 분석한 결과, 각 문헌이 저자의 소속당파에 따라 편파적으로 기술됐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조선후기의 당쟁관계문헌은 도서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선행해 저자의 당파적성향고찰을 1차적인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1. 緒 論

지금까지 韓國學 關係文獻은 도서관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왔다. 이들 자료의 평가,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사서의不在로 이용자에게 대한 질적인 봉사도 미진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朝鮮後期 古文獻을 살펴볼때, 정치사적으로 黨爭이 치열한 시기였던만큼 黨爭關係文獻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後期文獻의 이용자에 대한 문헌봉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쟁관계문헌의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조선후기의 黨爭關係文獻은 도서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선행하여 저자의 黨派의性向 考察이 그 평가법에 있어서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같은 역사적 사건이라도 각 당파에 따라 그 敘述에 있어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집권시에는 王朝實錄과 같은 官撰記錄을 통해서, 조정에서 물러나와서는 文集이나 그밖의 개인저술을 통해서 自己黨派의 정당성을 주장하

고 自己黨의 입장을 유리하게 潤色하는데 치중했던 것이다. 또한 집권당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집권세력의 史官에 의해 기록된 實錄의 수정작업을 단행한다.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 宣祖修正實錄과 顯宗修正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景宗改修實錄이다.

따라서 史實의 진실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이해를 위해서는, 당쟁관계문헌의 黨派性向을 분석하여 事件의 敘述태도가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가의 여부부터 밝히는 일이 先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朝鮮朝 肅宗·景宗 兩朝의 당쟁관계 문헌을 중심으로 주요한 歷史的 事件別로 당파성향을 분석, 상반된 서술태도를 평가하여 한국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의 조선후기자료에 대한 평가와 이용지도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研究對象 文獻 고찰

### 1) 個人著書

① 燃藜室記述 : 李肯翊(少論) 찬술. 전적으로 그 객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述而不作'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역사를 가장 객관적으로 살피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귀중한 史書이다.

② 黨議通略 : 李建昌(少論) 찬술. 드러내놓고 비방하지는 않았으나 말을 돌려서 은연중 상대당을 공격하는 편파적인 문구가 많다.

③ 我我錄 : 南紀濟(老論) 찬술. 객관적으로 기록했다는 저자의 말과는 달리 老論의 입장에서 四色의 是非를 가리고 있다.

④ 藥坡漫錄 : 李希齡, 李漢宗(老論) 찬술. 공정한 역사서술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채록에 있어서 주견이 많이 개입되고 자신이 속한 노론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과장하고 불리한 것은 축소한 경향이 있다.

⑤ 桐巢漫錄 : 南夏正(南人) 찬술. 몇 안되는 남인계 당론서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자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西인들이 문자의 날조를 통해 자기당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로 보기 어렵다.

2) 王朝實錄

① 肅宗實錄·肅宗實錄補闕正誤 : 『肅宗實錄』은 편찬도중에 老論·少論의 政爭으로 정국이 자주 바뀌어 편찬책임자가 몇차례 변경되었는데 마지막에 少論이 집권하면서 개수작업이 용이치 않아 '補闕正誤'를 붙였다.

② 景宗實錄 : 少論 撰修.

③ 景宗改修實錄 : 老論 修正·撰修. 『景宗實錄』에 기록된 노론에게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삭제 수정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론에게 불리한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 연구대상문헌의 著者 및 編纂責任者에 대한 黨色을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 事件別 文獻의 黨派性向 分析 및 評價

각 문헌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별로 肅宗朝와 景宗朝로 구분하여 그 당파성향을 분석하였다.

- 肅宗朝의 사건 : 紅袖의 變獄, 宋時烈的 誤禮罪, 庚申換局, 老少分黨, 懷尼是非, 己巳換局, 甲戌換局, 業同獄 (위의 8개의 事件들중 '己巳換局'의 한 사례만 들겠다.)
- 景宗朝의 사건 : 辛壬士禍

<표 1> 研究對象文獻의 著者 및 編纂責任者의 黨色

文獻	區分	撰述 또는 編纂年代	著者 또는 編纂責任者	黨色
燃藜室記述		英祖52年(1776) 以前 완성	李肯翊	少論
黨議通略		高宗27年(1890)경 완성	李建昌	少論
我我錄		哲宗朝(1849-1863)에 완성	南紀濟	老論
藥坡漫錄		純祖32年(1832) 완성	李希齡	老論
桐巢漫錄		英祖16年(1740) 후반	南夏正	南人
肅宗實錄		景宗即位年(1720) 착수	金昌集	老論
		景宗元年(1721) 착수	趙泰壽	少論
		景宗3年(1723) 착수	崔錫恒	少論
		英祖元年(1725) 착수	鄭澐	老論
			李觀命	老論
			閔縝遠	老論
肅宗實錄補闕正誤		英祖3年(1727)~英祖4年(1728)	李光佐	少論
景宗實錄		英祖2年(1726)~英祖8年(1732)	李埴·趙文命	少論
景宗改修實錄		正祖2年(1788)~正祖5年(1781)	鄭存謙	老論

1) 肅宗朝의 사건(己巳換局-禧嬪張氏 소생의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는 숙종의 명에 반대한 西人 宋時烈 등이 축출되고, 이를 지지한 南人이 집권한 사건)

① 燃藜室記述 : ‘前妃 閔氏가 친정으로 돌아가니 유생 수백 명이 통곡하고, 성균관유생들은 館을 비우고 나와 버렸다.’

② 黨議通略 : ‘禧嬪을 승차시켜 中宮을 삼게 되자 老論·少論은 힘을 합쳐 명절과 의리를 세우다가 모두 죄를 받고 화를 입었다.’

③ 我我錄 : ‘南人들이 일을 꾸며 왕의 생각을 어둡게 하였고 장희빈은 주상의 마음을 좀먹어 정비를 폐위시키는 변을 만들었다.’

④ 藥坡漫錄 : ‘冊元子封王世子’라고 간단히 왕세자 책봉 기사가 보인다.

⑤ 桐巢漫錄 : ‘老論이 禧嬪문제를 들어 우리 南人을 名義罪人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노론이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구실임을 後人들은 알아야 할 것이며, 당시의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⑥ 肅宗實錄 : ‘중궁은 안으로는 후궁의 투기와 이간이 있었고, 밖으로는 간신의 부추김이 있어 폐출의 변을 당하였으나 중궁의 언행에는 일찍이 한 가지의 잘못도 없었다.’

⑦ 肅宗實錄補闕正誤 : ‘己巳年의 坤極을 폐하였을때에 凶黨이 힘써 나투어 天意를 돌이키지 못하고 중용하였으니, 죄가 진실로 죽어 마땅하다.’

이상의 기사내용 분석을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燃藜室記述』과 『黨議通略』의 기사는 대체로 비슷하며 『燃藜室記述』이 『黨議通略』에 비해 인현왕후의 폐위와 관련하여 주위의 사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었드려 통곡하였다’는 표현을 씀으로써 인현왕후의 폐위의 부당성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黨議通略』에서 회빈의 왕비책봉과 인현왕후의 폐위를 반대한 것을 ‘의리’로 표현한 것은 撰者가 南人이 아니라는 반증이며, 다시 말하면 회빈의 왕후책봉은 의리가 아니며 종묘사직에 위태로운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我我錄』의 기사를 살펴보면, 남인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실각한 老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南人에 대한 감

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음은 물론, 더구나 인현왕후의 폐위가 장희빈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己巳換局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남인측에 불리하게 기술되어 있고 노론측의 억울함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당시인들의 인식은 己巳換局이 기해예송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정권교체이며 宋時烈的 죽음도 그 禮論의 고수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藥坡漫錄』에 왕세자책봉에 대한 간단한 기술만 있고 회빈 장씨 왕후책봉에 관한 사건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老論의 입장에서 볼때, 정비가 아닌 후궁이 정비를 내쫓고 중궁이 되면서 정국이 바뀌었으므로 종묘사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론의 치욕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반해 인현왕후의 행적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老論이 옹호하는 정통국모에 대한 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南人이 저술한 『桐巢漫錄』에는 비교적 자세하게 사건의 개황이 묘사되고 있으며 남인측의 입장을 변명하고 노론측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장희빈이 中宮의 자리에 올랐던 것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 왜냐하면 장희빈의 편에 설 수 밖에 없었던 南人들의 입장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기당에 유리하게 기술한 것으로서 己巳換局으로 인해 후에 南人들이 상대당으로부터 수세에 몰리지 않기 위한 방어로 생각된다.

『肅宗實錄』은 老論의 입장에서 撰修한 것이므로, 인현왕후가 언행에 한가지의 잘못도 없는데 肅宗이 한순간 판단을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肅宗實錄補闕正誤』에서도 己巳換局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각 문헌은 자기당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건에 관한 연구는 이와 상반된 기록을 신중히 비교연구해야 한다.

2) 景宗朝의 사건(辛壬士禍-延礪君[英祖]의 世弟 冊封, 대리청정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老論과 少論 사이에 일어난 당쟁의 옥사)

① 景宗實錄 : ‘임금이 비록 조회에 임하여 침묵하고 聽斷에 권태로움을 느낄지라도 기거동작이 常度가 있고 朝享을 폐한 적이 없으며, 비록

혹시 火氣가 올라 讜迷함이 있을지라도 群下가 아뢰는 일에 대한 酬答이 어긋나지 아니한데, 대신으로서 비록 충성스러움이 杜黃裳·趙汝愚와 같은 자가 있을지라도 정무를 놓는 일을 卽位 元年에 갑자기 의논하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다.’

② 景宗改修實錄 : ‘병을 숨길 수 있는가? 늘 있는 병은 失德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저 임금에게 불행히 병이 있는데, 左右에서 나라의 주권을 도둑질하여 社稷이 장차 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卽位한 元年일지라도 儲嗣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儲嗣를 이미 세웠다면 어찌 國政을 攝政하지 못하겠는가?’

‘임금이 仁政殿에 나아가 王世弟와 世弟嬪 徐氏를 책봉하였다. 升龍이 東方에 나타나 보였다.’

③ 黨議通略 : ‘陸虎龍이 老論一派의 역모를 고변하였다. 陸虎龍의 供辭에 “賊黨이 혹은 칼로, 혹은 약으로, 혹은 廢黜 등의 음모로, 역적질을 꾸미옵기로 簧公함을 이기지 못하여 와서 고함니다.”고 하였다.’

④ 我我錄 : ‘肅宗 辛巳年부터 경종이 병이 있었다. 庚子年 즉위한 뒤에 聖上의 병은 더욱 위독하여 자손을 번성시키는 희망을 상실하였다. 만일, 경종이 병이 없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왕대비의 교지(延嗣君의 世弟冊封)는 진실로 잘못되었고 대신들의 간청은 참으로 망령된 것일 것이다.’

이상의 기사내용 분석을 종합하여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景宗實錄』에서는 延嗣君을 왕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老論의 상소가 당치 않은 일임을 거론하며 그들의 사악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에 반해 『景宗改修實錄』에서는 老論 자기당의 정당성을 밝히려는 문구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延嗣君의 새자책봉시에 동방에 升龍이 나타났음을 서술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天命으로써 밝히고자 한 흔적이 엿보인다.

『黨議通略』의 기사에서 李建昌은 景宗에게 병이 있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노론이 서둘러 왕세자를 책봉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또한 陸虎龍의 고변사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少論인 이견창이 그 사건을 명백한 역모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경종의 본심은 代理聽政을 시키고 싶은 것이 아닌데 역적들에게 속아서 대리 청정을 명하는 것이라는 南人 司直 權珪 등의 聯

名疏를 기록하고 있다. 李建昌이 少論임을 고려해볼때,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는 했지만 주관적인 자신의 견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我我錄』의 기사를 보면 景宗이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깊어 마땅히 대리를 세워야 했다는 노론의 명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또한 자기당의 정당성을 변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辛壬士禍에 대한 사건기록도 자기가 속한 당파에 따라 편파적으로 자기당에 유리하게 기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사건에 관한 연구시에는 반대당과의 기사도 아울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4. 結 論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문헌을 중요한 역사적 사건별(3.사건별 문헌의 당파성향 분석 및 평가'참조)로 그 黨派性向을 분석한 결과, 同一事件에 대한 서술태도와 관점이 著者の 所屬黨派에 따라 상반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자기당과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당에 유리하게 운색·과장하거나 축소한 경향이 있고, 상대당에 대한 비판적인 문구가 많이 밝혀졌다.

따라서, 朝鮮後期의 문헌이 저자의 黨派에 따라 사실을 왜곡 또는 축소하거나 운색 또는 과대평가하고 편파적으로 기술됐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朝鮮後期文獻를 인용할때는, 한 문헌만 인용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되므로 먼저 반드시 著者の 黨派性向을 파악한 다음, 반대당에 의해 쓰여진 黨爭關係記事와 비교·대조함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한국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들이 유념하여야 할 문제이다.

#### 參 考 文 獻

- 1) 朝鮮王朝實錄 (肅宗實錄, 肅宗實錄補闕正誤, 景宗實錄, 景宗改修實錄)
- 2) 南紀濟. 我我錄. 『黨爭史料集』1集. 旰晟社. 1981.
- 3) 南夏正. 桐巢漫錄. 『黨爭史料集』1集. 旰晟社. 1981.
- 4) 李建昌. 黨議通略
- 5) 李肯翊. 燃藜室記述
- 6) 李希齡. 藥坡漫錄